



문서번호	지역경제과-24032
결재일자	2015.7.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역경제팀장	창조경제추진단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황성준	김용중	임채선	김광호	07/29 代이윤영	
협 조					

## 성수동 BI 선포식 행사 결과 보고

### □ 관련 근거

- 성수동 BI 활용 계획(부구청장 방침 제314호, 2015.7.20.)
- 민선 6기 약속사업
  - No.120 성수IT개발진흥지구 육성을 위한 시비 유치

### □ 행사 개요

- 일 시: 2015. 7. 24(금) 16:30 ~ 17:30
- 장 소: 카페 사진창고, 성수이로7길 26(성수동2가 309-59)
- 참석인원: 150명
  - 구청장, 시의원(이상목), 구의원(윤종욱, 신동욱), 성수 4개동 주민자치위원장
  - 마을공동체 · 사회적경제 관계자, 혁신활동가, 지역소상공인, 디자이너·예술가 등
  - 성수동 도시재생 주민참여단, 성수동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통장, 일반주민 등
- 행사내용
  - 성수동 BI 선포식(제막식)
    - 구청장님 외 7명 성수동 BI 현수막 제막
  - 성수동 BI 프리젠테이션(김희정 디자인플러스 대표)
    - 성수동 BI 제작과정 및 의미 등
  - 성수동 마을이야기(손병호 성동구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 지원단 단장)
    - 성수동의 현황과 이슈 소개, 마을 이야기 등

○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25 ~ 16:30	5'	참석자 안내	사회자
16:30 ~ 16:35	5'	개회 및 내빈 소개	
16:35 ~ 16:40	5'	경과보고	지역경제과장
16:40 ~ 16:50	10'	인사말씀	시의원, 구의원
16:50 ~ 16:55	5'	성수동 BI 선포식(제막식)	구청장, 구의원, 주민 등
16:55 ~ 17:05	10'	성수동 BI 프리젠테이션	김희정 대표(BI 제작자)
17:05 ~ 17:25	20'	성수동 마을이야기	손병호 단장 (성동구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지원단)
17:25 ~ 17:30	5'	구청장님 인사말씀(총평)	구청장님
17:30	-	환담 및 폐회	사회자

○ 총평

- 성수동 BI는 성수동에서 큰 의미를 갖는 만큼 성수동의 분위기에 맞는 이색적인 장소(카페)에서 그간의 행사와는 다른 참신한 행사를 기획함
-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수지역 주민이 참여하였고 행사를 통해 성수동 BI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주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됨
- BI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역, 특히 동(洞)단위에 적용한 것은 전국적으로 아직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례적이며 성수동이 도시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시재생시범사업 등 다양한 변화의 시작점에서 BI를 활용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음

○ 행사사진





○ 보도자료(2015.7.23. 서울신문)

서울신문

2015년 07월 23일 (목)  
14면 수도권

# 성수동, 낡은 옷 벗고 새로운 브랜드로 재탄생

**성동, 24일 동 단위 처음 BI 선포식  
도시재생 사업 대표 이미지로 활용**

낡은 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식돼 온 서울 성수동이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 **성동구**는 동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성수동의 'BI' (Brand Identity·사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BI는 상품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활용하는 브랜드 이미지다. 공공부문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일부 BI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 최소단위인 동(同)을 도시 브랜드로 인식해 제작, 홍보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선포식은 오는 24일 성수동에 있는 '사진창고' 카페에서 열린다. 구는 '성수동' 그 자체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동적이고 건강한 느낌을 바탕으로 BI를 만들었다. 슬로건은 '성수동이어 플랫폼이 되자' (Be Platform)로 정했다. 성수동을 소통·성장·도시재생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성수동은 최근 서울시의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됐다. 구는 이번에 제작한 BI를 성수동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 이미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성수동 홍보물과 현수막 등에 삽입하고, 주요 지역에는 가로기를 만들어 알릴 계획이다. 또 지역사업이나 축제, 행사 등에 활용하며 성수동 BI의 상표권 등록도 추진한다.



성수동은 최첨단 IT 산업의 기반으로 하는 지식 산업 센터와 수제화, 봉제 등 기존의 전통산업이 혼재된 준공업 지역이다. 2012년부터 성수동에는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사회적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들이 모여 마을이 유명세를 타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 때문에 다시 예술가가 떠나게 된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현상이다. 구는 이 같은 현상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형장은 "성수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새로 유입되는 예술가, 창업가들 간 상호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상생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끝.

